

## 제 목 : 정글짐

### 1조 [탱그르]

조원	김민재, 이유미, 김동규, 김은수, 김진균, 이수나, 후슬랭
제작 형식	ENG
출연	현재의 나(민정), 과거의 나(민정)
기획 의도	가끔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순수함을, 그 무모했던 도전들을 떠올리면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다. 좌절의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며 '나'라는 위로를 받는 짧지만 굵은, 여운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.
제작 방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대화는 짧고 굵게 짧은 영상인 만큼 대사는 줄이는 대신 대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키우고자 함</li><li>2. 한 컷 한 컷 여유롭게 물 흐르듯 급할수록 여유 있게 라는 말이 있듯 좌절의 순간, 절망적이고 급박 할 수 있지만, 컷 하나하나 여유있게 짜여있어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함</li><li>3. 힘들 땀 아이처럼, 영상 마지막에 '힘들 땀 아이처럼'이라는 문구를 넣어 순수함 속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주인공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함</li></ol>

<구성>

시간	내용
3’/3“	Cinematic intro 정글짐에 위에 과거의 나 아래에 현재의 나
3’/6“	면접에 떨어졌다는 문자를 받는 현재의 나가 한숨을 쉰다.
1’/7“	현재의 나를 부르는 과거의 나의 명찰이 보이고
2’/9“	“안 올라오고 뭐 해”라고 말하는 과거의 나
3’/12“	현재의 나는 힘 빠지는 목소리로 “또 떨어지면 어떡해”
3’/15“	그 말을 들은 과거의 나가 “에이 별로 안높아”
2’/17“	과거의 나의 말을 듣고 정글짐을 한번 올라보려는 현재의 나
1’/18“	정글짐의 기둥을 잡은 현재의 나의 손
6’/24“	정글짐을 오르며 점점 어려워 결국 과거의 나가 되는 현재의 나 (잔상 효과)
3’/27“	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주인공
3’/30“	아웃트로와 함께 나오는 “ 힘들 땀, 아이처럼” 자막

<시나리오>

S#1 해질녘, 정글짐

정글짐에 두 사람이 있다.

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(현재)은 정글짐 아래에,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(과거)은 정글짐 위에 있다.

면접 탈락 안내 문자를 받은 민정(현재), 한숨을 크게 쉰다.

민정(과거)           (통명스럽게) 안 올라오고 뭐 해  
민정(현재)           (힘 빠지는 목소리로) 또 떨어지면 어떡해  
민정(과거)           (살짝 웃으며)에이 별로 안 높아

그 말을 들은 민정(현재)은 오묘한 표정을 짓고 정글짐을 오르기 시작한다.  
정글짐을 한칸 한칸 오를 때마다 민정(현재)은 점점 어려워지며 결국 과거의 모습으로 변한다.

하늘을 보며 미소짓는 민정

(디졸브)

*“힘들 땀 아이처럼”*